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	문서 일자	11.25	관련 기관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관
사우디 노동시장 개혁 동향					
□ 사우디 여권(Jawazat)관리국					
○ 2014.11.23.(일) 체류허가증(Iqama)을 거주자 신분증(Resident ID)으로 명칭 변경 및 유효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동 발표에 앞서 11월 중순에는 사우디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둔 외국인 여성에게 스폰서 동의 필요 없이 5년간 유효한 Iqama(체류허가증, 거주자 신분증으로 명칭 변경 예정)를 무료로 발급 예정임을 발표					
○ 해당 조치는 2013년 이후 전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특히 불법 노동자 단속, 추방조치로 건설공사 지연,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우디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여파가 부각되면서 나온 대책으로 보임					
- 때문에 사우디 정부 및 경제계에서는 외국인 취업 안정, 프로젝트 공기 준수, 외국인 투자 및 기술이전 증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					
- 관련 문제 조치를 위한 사우디 노동부의 추진 계획 목록					
사우디 노동부 계획 발표					
·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Saudization 의무고용(Nitaqat)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지침의 수정보완					
※ 장애인센터, 전략적 파트너십 연구기관, 보건대학, 여성 관련업종 (서비스, 소아병원, 화장품, 봉제), 성지 관련 건설, 주유소 및 순례자 수송 등 9개 부분을 의무고용 프로그램 대상에 신규 추가					
· 대규모 노동자(가정부 포함) 송출국(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이디 오피아, 케냐, 모로코 등 총 11개국)과의 협정 체결(갱신)					
· 자국민 및 외국인 최저임금 인상 등					
○ 사우디 국정자문회의 등에서 해당 정책 실효성 관련 의문에 대해 노동부 측 에서는 “노동시장이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민간부분에서 사우디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각 분야 및 업종별 비즈니스 활동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규정을 계속 수정, 시행한다”는 기본입장 고수(출처 : Ahmed Al-Humaidan, 노동부 노동정책 담당 차관보)					
○ 또한, 최근 대변인 발표를 통해 노동부 내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자국민 고용쿼터를 늘리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업률 억제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계획을 발표					